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나라엠앤디(05149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민충기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엠앤디(051490)

금형 기술의 뿌리로, ESS 미래를 성형하다

기업정보(2026.07.23 기준)

대표자	김영조, 김정훈
설립일자	1999.02
상장일자	2001.06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주요제품	다이캐스팅금형, 트랜스퍼금형, 전자관새도우마스크 금형

시세정보(2026.07.23 기준)

현재가(원)	2,68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383
발행주식수	14,200,000
52주 최고가(원)	4,930
52주 최저가(원)	2,255
외국인지분율	2.77
주요주주	김정훈, 김영조

■ LG전자 Spin-off로 출발한 금형 전문 중견기업

나라엠앤디(이하 동사)는 1999년 2월 LG전자(주) 생산기술센터 금형공장을 Spin-off하여 설립된 정밀 금형 및 부품양산 전문 중견기업으로, 2001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현재 27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라엠텍(주), 나라플라테크(주), 인도네시아·중국·폴란드·멕시코 해외법인 등 7개 종속회사로 구성된 글로벌 연결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차, 가전, 전기차 분야 대형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LG전자(주)가 지분 12.57%를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긴밀한 공급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금형·부품양산·ESS 사출부품으로 구성된 3대 사업 포트폴리오

동사의 사업은 크게 금형부문(Press·Mold 금형), 전기자동차 Battery Pack/ESS 사출부품양산부문, 자동차·가전 부품양산부문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형부문은 자동차 Transmission, Seat, Bumper 등 Press 금형과 전기차 구동용 모터코어 금형을 포함하며, 부품양산부문은 자동차용 Seat Rail, Track Assembly, Core Plate, Hub & Shaft 등 고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나라엠텍(주)의 옥산사업장과 해외 법인을 통한 ESS 사출부품 양산사업은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글로벌 생산거점과 ESS 시대로의 사업 전환 추진

동사는 국내 창원·평택·충북 청원을 비롯하여 중국 곤산·남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폴란드 브로츠와프, 멕시코 누에보레온에 이르는 글로벌 4개국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LG에너지솔루션을 핵심 납품처로 하는 ESS용 사출부품 사업 비중이 전기차 캐즘 국면을 넘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기존 금형 및 자동차·가전 부품양산 사업은 견조한 수주 기반을 유지하며 수익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글로벌 ESS 수요 확대에 따른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2,310.0	5.86	107.1	4.64	89.2	3.86	9.22	3.68	137.04	622	7,218	10.22	0.88
2024	2,038.2	-11.77	49.8	2.44	20.0	0.98	3.58	0.79	142.59	253	7,668	14.79	0.49
2025	1,846.3	-9.41	-0.8	-0.04	46.8	2.54	5.12	1.78	148.84	371	7,899	10.50	0.49

기업경쟁력

글로벌 생산 인프라

- 국내(창원·평택·청원) + 해외 4개국(중국·인도네시아·폴란드·멕시코) 7개 법인 보유
- 연결 종속회사 통한 한국·유럽·미주·아시아 동시 공급 체계 구축
- LG에너지솔루션 납품 전용 해외법인 다수 보유로 글로벌 공급망 내 안정적 지위 확보

핵심 고객사 연계 기반

- LG전자(주) 지분 12.57% 보유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LG에너지솔루션 EV Battery Pack/ESS 사출금형·부품 단독 공급 체계
- 발레오, 현대모비스, 경창산업, 다스, 한국보그워너 등 국내외 대형 거래처 다각화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ESS-EV 사출금형 기술

- 전기자동차 Battery Pack 및 ESS용 사출금형·부품양산 기술을 자체 보유하며, 나라엠텍(주) 평택 및 옥산 사업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전용 라인으로 생산 중인 것으로 파악됨

자동차용 Press-Mold 복합 금형

- Transmission, Seat Rail, Bumper, 모터코어 등 자동차·가전 핵심 부품 금형을 자체 설계부터 제작·납품까지 일관 수행하는 Concurrent Engineering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기자동차 Battery Pack>



시장경쟁력

ESS 시장 선제 포지셔닝

- 글로벌 ESS 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각국 탄소중립 정책 강화를 배경으로 고성능 시장이 전망되며, 당사는 LG에너지솔루션 전용 공급망 내 ESS 금형·부품 핵심 협력사로 선점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글로벌 금형 시장 내 차별화

- 글로벌 산업용 금형 시장은 전기차 부품 수요 및 제조 자동화 확산을 배경으로 중장기 성장이 전망되며, 당사는 자동차·ESS 복합 금형 기술을 보유한 종합 금형 기업으로서 국내외 대형 OEM 대상 고차형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고차형 공급망 구조

- 자동차 및 가전 부품양산 사업은 신규 Buyer 진입 장벽이 높은 특성상 일단 거래가 성립되면 완제품 단종 시까지 안정적 수주가 유지되며, 당사는 수십 년 이상의 LG계열 납품 이력을 기반으로 안정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I.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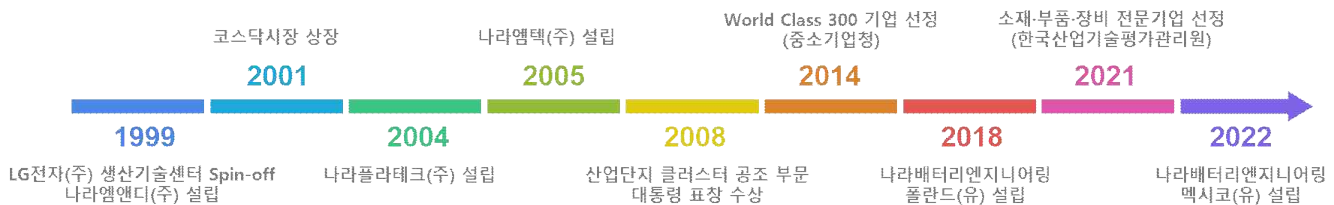
LG 생산기술 DNA를 보유한 정밀 금형·ESS 부품 전문 증견 상장사

동사는 1999년 LG전자 금형사업부를 모태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 증견기업으로, 자동차·가전·ESS 분야 정밀 금형 및 부품양산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외 7개 법인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배터리 사업 확대에 연동하여 ESS 사출부품 비중이 연결 매출 기준 58.3%(2026년 1분기)로 급상승하며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99년 2월 LG전자(주) 생산기술센터 금형공장을 Spin-off하여 설립되었으며, 2001년 6월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 26년 이상 정밀 금형 및 부품양산 분야에서 입지를 구축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2004년 사출부품 사업부문 분할을 통해 나라플라테크(주)를 설립하고 2005년에는 LG전자와 합작으로 나라엠텍(주)를 설립하며 사업 전문화·법인 분리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2014년 World Class 300 기업 선정, 2018년 자본재산업발전 유공기업 국무총리상 수상 등을 통해 제조 역량을 공인받았으며, 2018년 폴란드, 2022년 멕시코 배터리엔지니어링 법인 설립을 통해 유럽·미주 시장을 아우르는 글로벌 ESS 부품 공급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각자대표 체제로, 김영조 회장(대표이사)과 김정훈 사장(대표이사)이 공동으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영조 회장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前 LG전자 생산기술센터장을 역임한 후, 1999년 동사 설립과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경영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라엠텍(주), 나라플라테크(주), 나라모구(곤산)유한공사 등 주요 종속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LG전자 시절부터 축적된 금형 제조 기술과 글로벌 OEM 네트워크를 그룹 전반에 이식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훈 사장은 한성대학교를 졸업하고 前 나라엠텍 경력을 보유하며 2018년 8월 동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23년 3월 경영총괄 직책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라엠텍(주) 및 나라모소기술(남경)유한공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배터리·ESS 부품 사업 영역의 전략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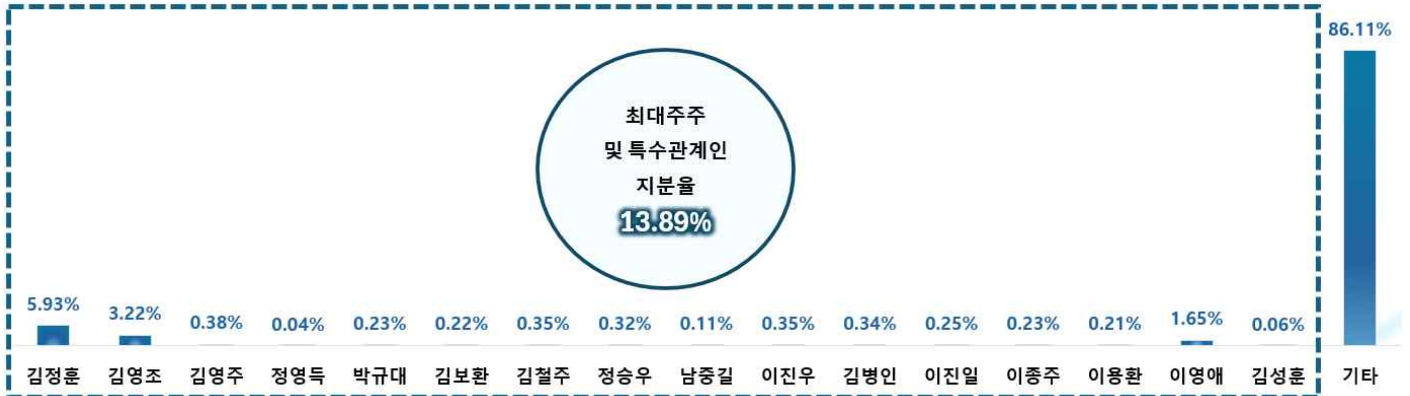
■ 주주 현황

동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3.89%(보통주 1,971,996주)로, 최대주주 김정훈 사장이 5.93%(841,744주)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략적 주주로는 LG전자(주)가

나라엠앤디(051490)

12.57%(1,785,030주)를 보유하며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LG에너지솔루션 납품 공급망과의 연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사주조합이 0.13%(18,26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992,645주(약 7.0%)가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액주주는 전체 주주 13,711명 중 99.91%인 13,701명이며 소액주주 보유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60.86%를 차지하고 있어, 유통 주식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 분야

동사는 금형부문, 전기자동차 Battery Pack/ESS 사출부품양산부문 및 자동차·가전 부품양산부문의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매출유형	품목	제품 설명
금형부문	Press 금형 / Mold 사출금형	자동차 Transmission·Seat·Bumper 등 Press 금형, Heater/Blower Case 등 Mold 사출금형, 가전·모터코어 금형 제작 및 국내외 판매
전기자동차 Battery Pack/ESS 사출부품양산	EV/ESS 사출부품	전기자동차 Battery Pack 및 ESS용 사출부품 양산(나라엠텍 옥산, 나라모소기술(남경), 폴란드·멕시코 법인 운영)
자동차/가전 부품양산부문	자동차 부품 / 가전 부품	자동차용 Seat Rail, Track Assembly, Core Plate, Hub & Shaft 등 프레스 부품 및 자동차·냉장고용 Mold 사출부품 양산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금형부문은 자동차·가전·전기차 분야 대량생산의 핵심 기반인 Press 금형과 Mold 사출금형을 전문 제작하는 사업 영역으로, 국내 창원 본사 및 성산공장, 인도네시아 PT.NARA SUMMIT INDUSTRY, 중국 나라모구(곤산)유한공사 등 글로벌 거점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Press 금형은 자동차 Transmission류, Seat류, Bumper류, Carrier류 등 핵심 구조부품과 전기차 구동용 모터코어 금형을 중심으로 제작하며, Mold 사출금형은 자동차 Heater/Blower Case·Fan Cooling,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금형을 국내외 대형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레오, 현대모비스, 경창산업 등 Tier-1 자동차 부품사와 LG전자 등 가전 대기업을 주요 납품처로 하는 안정적 수주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라엠앤디(051490)

전기자동차 Battery Pack/ESS 사출부품양산부문은 동사 연결 그룹의 핵심 성장축으로, 나라엠텍(주) 옥산사업장(충북 청원), 나라모소기술(남경)유한공사(중국), 나라배터리엔지니어링폴란드유한회사, 나라배터리엔지니어링멕시코유한회사 등 4개 글로벌 거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EV Battery Pack 및 ESS용 사출부품을 전문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부문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배터리 사업 확대에 연동하여 2026년 1분기 기준 연결 매출 비중 58.3%를 기록하며 그룹의 최대 매출 부문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ESS 생산 거점 확대(2026년 말 50GWh 목표) 전략에 맞물려 동사의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 자동차 Press 및 Mold 대표 품목(Torque Converter, Front Bumper)



자료: 동사 홈페이지

자동차·가전 부품양산부문은 동사 본사의 P&C사업부와 종속회사 나라플라테크(주)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P&C사업부는 자동차용 Seat Rail, Seat Track Assembly, Core Plate, Bearing Cage, Hub & Shaft 등 Press 방식의 구조부품을 다스, 한국보그워너, 세플러코리아 등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라플라테크(주)는 자동차용 Compartment, Armrest, 냉장고용 Roller 등 Mold 사출부품 생산에 더하여 이중사출(2중사출) 등 고부가가치 공정으로의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문은 완제품 생산 중단 시까지 안정적 납품이 보장되는 산업 특성상 견조한 수주 잔고를 유지하며 그룹 전체의 수익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들어 미국 DTE에너지와 6GWh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약 2조 4천억 원)을 체결하며 대규모 ESS 수주를 재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심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사출부품 수요가 동사 연결 그룹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전환 라인이 안정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부품 공급사인 동사에도 긍정적인 수주 확대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동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ESS 사출부품 매출 비중이 58.3%로 급상승한 것은 이러한 고객사 수요 회복 및 사업 전환 흐름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기존 자동차 금형 및 가전·자동차 부품양산 사업의 수주 기반을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국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한 ESS 전용 금형·부품 공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제도 본격화와 함께 장주기 ESS 시장이 구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동사의 ESS 금형·부품 사업 성장에 추가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종속회사 나라배터리엔지니어링멕시코유한회사를 통한 미주 시장 공급망 구축이 완료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북미 ESS 시장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I. 시장 동향

ESS·EV 부품 수요 확대 속 글로벌 금형·부품양산 시장 동반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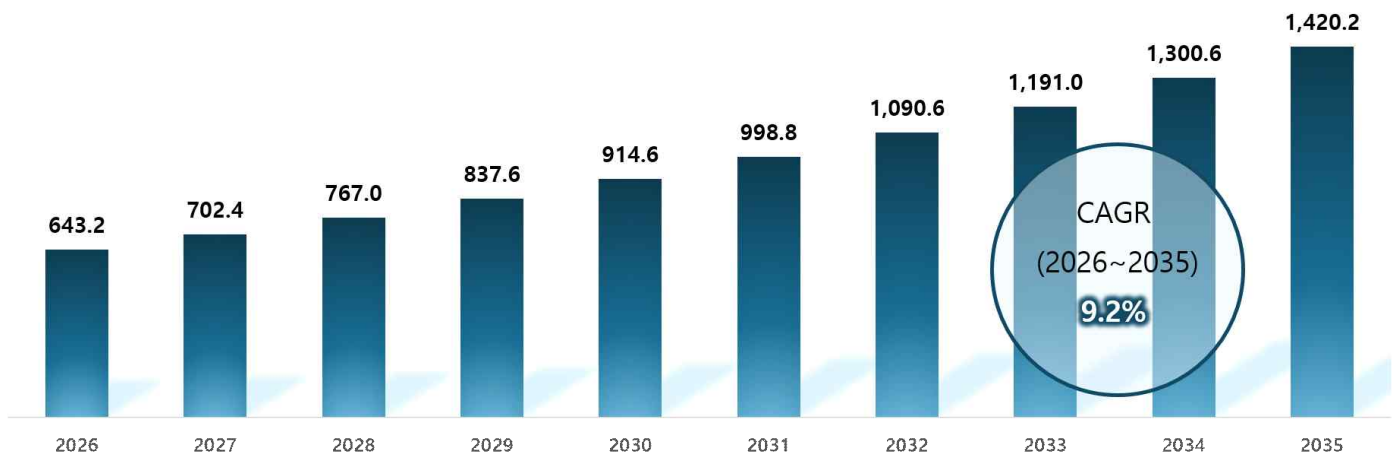
동사의 목표시장은 글로벌 산업용 금형 시장과 급성장하는 ESS·전기차 부품양산 시장으로 구성되며, 두 시장 모두 전기화(Electrification) 전환 트렌드와 제조업 고도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구조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Business Research Insights, 「Industrial Mold Market」 통계자료(2025)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용 금형 시장은 2026년에 643억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꾸준히 성장하여 2035년까지 1,420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성장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 9.2%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기차 부품 수요 및 제조 자동화 확산을 배경으로 금형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확대 궤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글로벌 산업용 금형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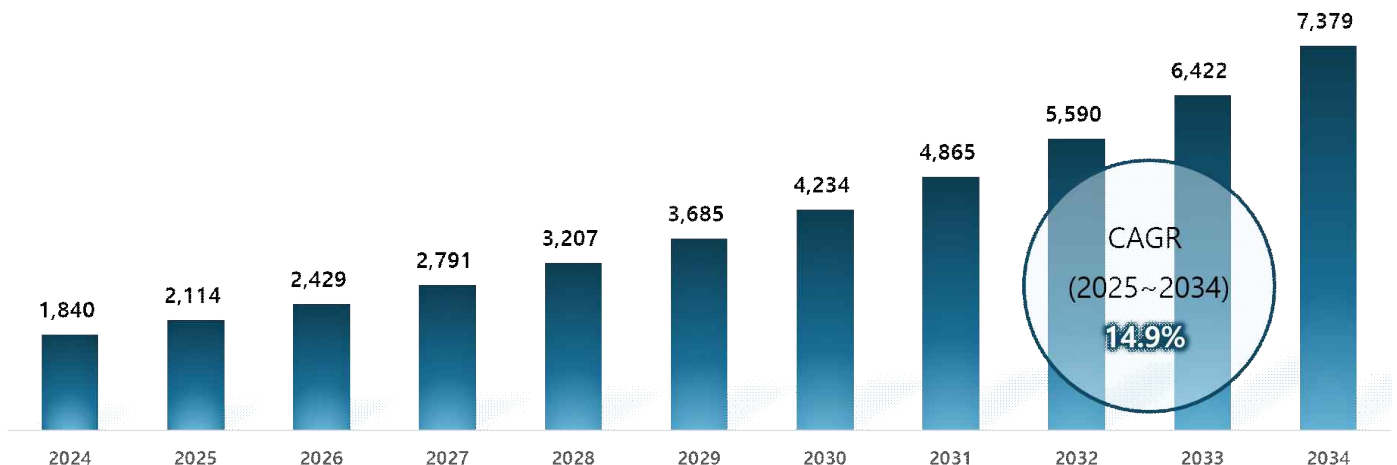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Business Research Insights, 「Industrial Mold Market」 통계자료(2025), NICE평가정보㈜ 재가공

그림 5.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Market.us, 「Energy Storage Systems Market Report」 통계자료(2025), NICE평가정보㈜ 재가공

Market.us, 「Energy Storage Systems Market Report」 통계자료(2025)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은 2024년 1,840억 달러 규모였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평균 14.9%의 성장률로 성장하여 2034년에는 7,37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국내 금형 산업은 수주생산 방식의 고정밀 복합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자동차·가전·전기차 등 전방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담당하는 핵심 소재·부품 분야로 분류된다. 국내 금형 시장은 대형 OEM 고객사와의 장기 납품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신규 진입 장벽이 높으며, 주요 업체들은 LG·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중심의 장기 공급망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전기차 전환 및 ESS 시장 확대 국면에서 기존 자동차·가전 금형 기술을 EV·ESS 전용 금형으로 전환하는 역량이 업체 간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3D CAD/CAM 일관화, AI 기반 금형 설계, 스마트 공정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품질·납기·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종합 금형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형·ESS 부품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ESS 배터리팩 및 관련 부품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셀 3사가 EV 라인을 ESS 전용으로 전환하고 북미·유럽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연동한 ESS 사출금형 및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ESS 도입 의무화 추진과 각국의 RE100·탄소중립 정책 이행이 ESS 수요의 구조적 고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미국 시장 내 규제 강화는 한국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추가적인 수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글로벌 금형 및 ESS 부품 시장에서는 고정밀 사출 성형 기술, 스마트 금형 제조, ESS 전용 경량화 구조물 설계 역량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Adval Tech Holding AG(스위스), Röders TEC(독일) 등 유럽계 업체가 첨단 소재 및 자동화 금형 기술을 앞세우고 있으며, 중국계 업체들은 저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시장에서는 LG·삼성·현대차 등 대형 OEM 연계 여부가 시장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며, EV·ESS 전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당사는 LG전자 Spin-off 기업으로서 LG에너지솔루션과의 장기 공급관계와 자체 등록특허 11건을 보유하며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기술·고객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현황
에이테크솔루션(주)	• 자동차·전자제품용 정밀 Mold 금형 전문업체로, 국내 대형 가전·자동차 OEM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임
엠에스오토텍(주)	• 자동차 차체부품 및 금형 제조 전문업체로, 핫스탬핑 공정 기술 및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우신시스템(주)	• 자동차 금형 및 자동화 설비 제조 전문업체로, 특히 차체 금형 및 용접 자동화 설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됨

자료: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모터코어·ESS 전용 금형 특허 중심의 복합 기술 포트폴리오 보유

동사는 전동기 코어적층용 전기강판 적층 시스템, 사출 금형장치, 차량용 내장재 제조장치 등 11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며, 자동차·ESS·모터코어 분야 금형 제조 기술의 자체 원천 역량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2022년 이후 모터코어 및 ESS 관련 특허 출원이 집중되어, 미래 전동화 시장을 겨냥한 기술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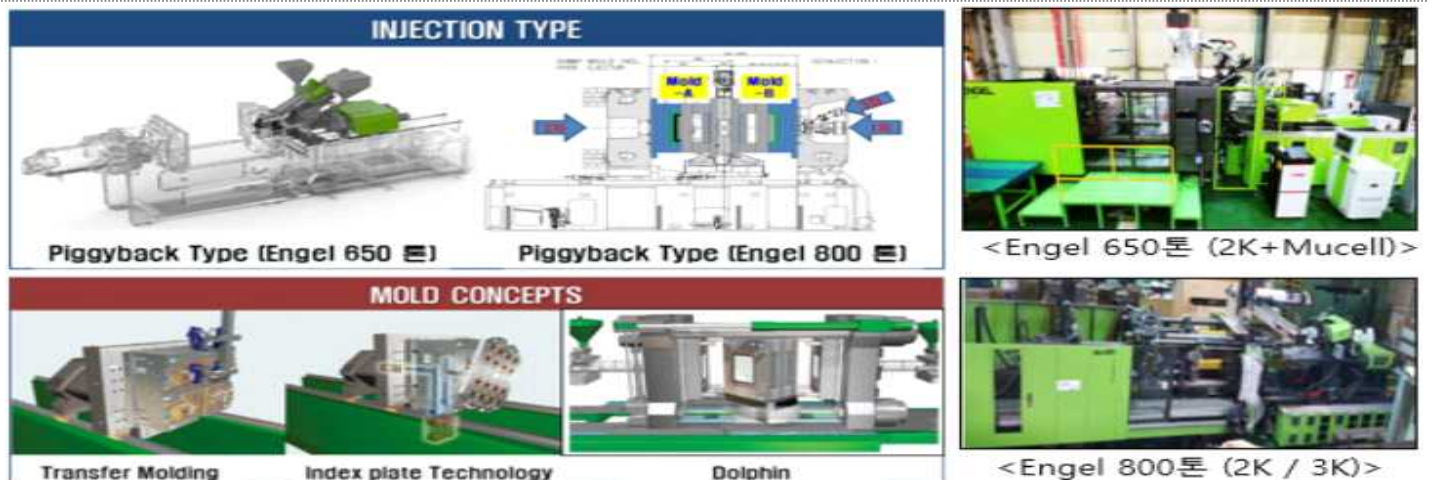
■ 전동기 코어 적층 및 ESS 금형 기술

동사는 전동기 코어적층 분야에서 다수의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 특허인 '전동기 코어적층용 전기강판 적층시스템'(등록번호 10-2988228)은 2~6장의 코일판을 접착·코킹으로 일체화하여 프레스 성형하는 중첩적층 기술로, 모터의 품질 안정성과 생산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관련 특허군으로 '전동기 코어 전기강판 적층시스템'(10-2950772), '전동기 코어적층용 전기강판 접착제 도포 방법'(10-2942858), '전동기 코어 적층용 전기강판 이송시스템'(10-2929107) 등 모터코어 제조 공정 전반에 걸친 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기술은 전기차 구동 모터 및 ESS용 모터 제조에 직접 적용되며, 국내 대형 가전·전기차 고객사 대상 고부가가치 금형 수주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한다.

■ 사출 금형 및 성형 기술

동사는 고정밀 사출 금형 분야에서도 자체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사출 금형장치'(10-2133454)는 캐비티 실 체적 변형을 통해 박육 부분의 고압 사출 또는 발포 사출에 대응하는 기술로, 전기자동차 Battery Pack 및 ESS의 경량화·복잡 형상 사출 부품 제작에 응용된다. '차량용 내장재 제조장치 및 이를 이용한 제조방법'(10-2255564)은 스킨폼 일체 사출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내장재 제조 특허로, 품질 고급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실현한다. 또한 '금형 캐비티의 온도제어가 용이한 사출금형'(10-1201625)은 금형 캐비티 측면에 온도제어매체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성형 품질 안정성을 제고하며, 대형 가전제품 금형 제작에 특히 유효하다. 이들 기술은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인 금형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사내에서 개발된 자체 성과로 확인된다.

그림 6. 이중사출 금형 및 성형 기술



자료: 동사 홈페이지

■ 자동차 Press 금형 특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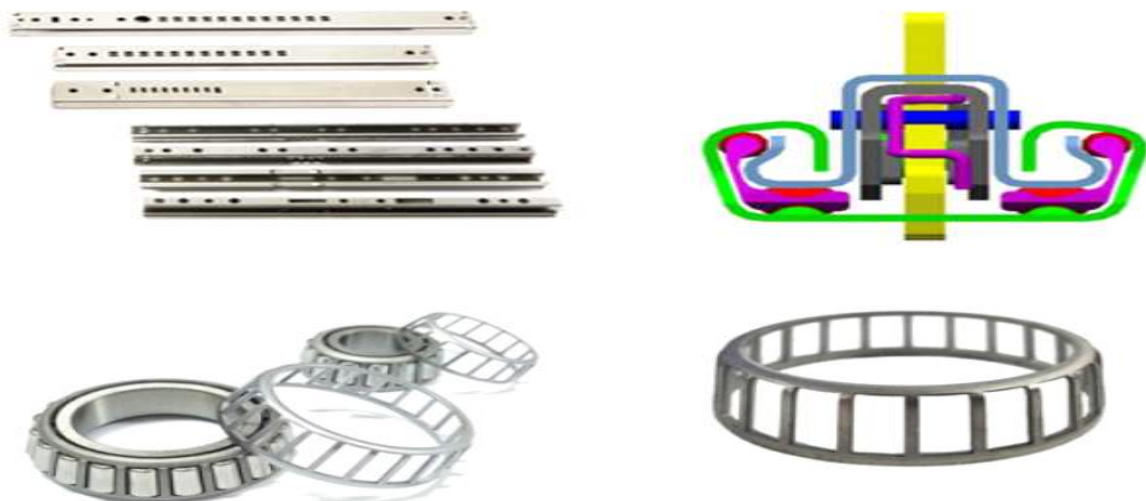
동사의 Press 금형 기술은 자동차 부품 국산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원통형 소재의 외주에 스플라인 기어형성을 위한 인-다이폴포밍 성형장치'(10-0832588)는 자동변속기 드럼 클러치 플레이트의 스플라인 치형을 금형 내에서 직접 성형하는 Roll Forming 방식으로, 작업 속도를 기존 대비 8배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술은 자동차 Torque Converter 금형 국산화(도입비 20억 원 → 11억 원, 개발기간 6개월 → 3개월 단축)에 활용되며,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춘 사업적 기여도가 높은 특허로 평가된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금속분리판 금형 개발 실적(유로 평탄도 0.01mm 이내, 0.1R 300×100×40mm 정밀가공 기술)은 미래 수소경제 분야로의 기술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개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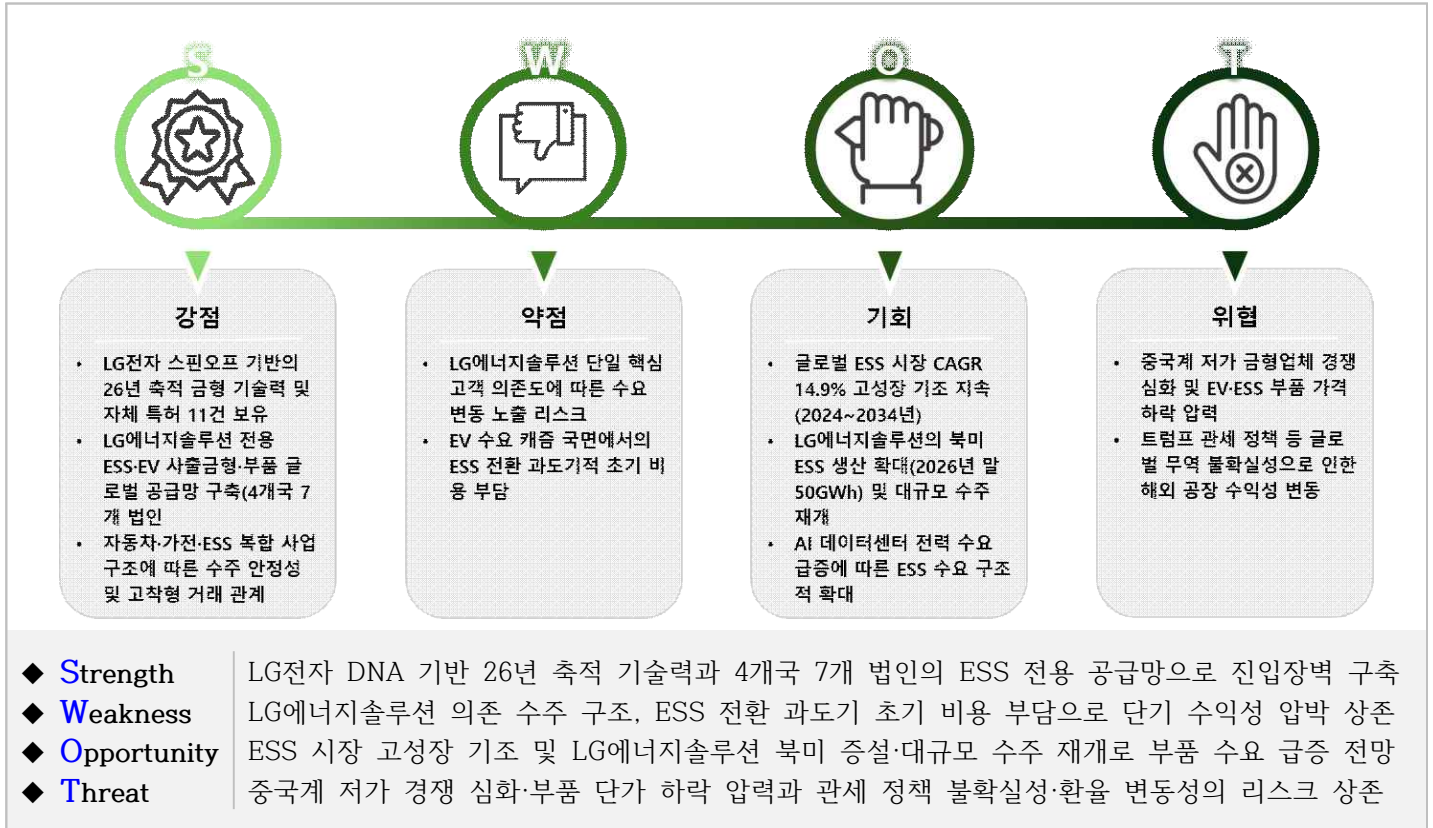
동사의 연구개발 활동은 금형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제25기(2023년) 32억 4,700만 원(매출액 대비 1.4%), 제26기(2024년) 26억 7,800만 원(매출액 대비 1.3%), 제27기(2025년) 29억 1,600만 원(매출액 대비 1.58%)으로 확인된다. 단, 이 중 지배회사인 나라엠앤디(주) 단독 기준에서는 제25기 32억 4,700만 원(매출액 대비 3.4%), 제26기 26억 7,800만 원(2.8%), 제27기 29억 1,600만 원(3.1%)의 비율로 꾸준히 3%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제27기 28억 6,500만 원으로 전체의 98.3%를 차지하며, 내부 연구 인력 중심의 기술 역량 축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Press 금형 분야에서의 모터코어 자동적층 금형 개발(제품불량을 감소), 고장력강판 Seat Rail 금형(100kg급 적용), 수소연료전지 금속분리판 금형 개발 등이 있으며, Mold 사출 금형 분야에서는 RGIM 성형기술, Film 전사 성형기술, Paint Free 성형기술, 사출압축성형(ICM), 이중사출 성형기술 등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2~2024년에 집중된 전동기 코어적층 관련 특허 출원(4건)은 전기차·ESS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R&D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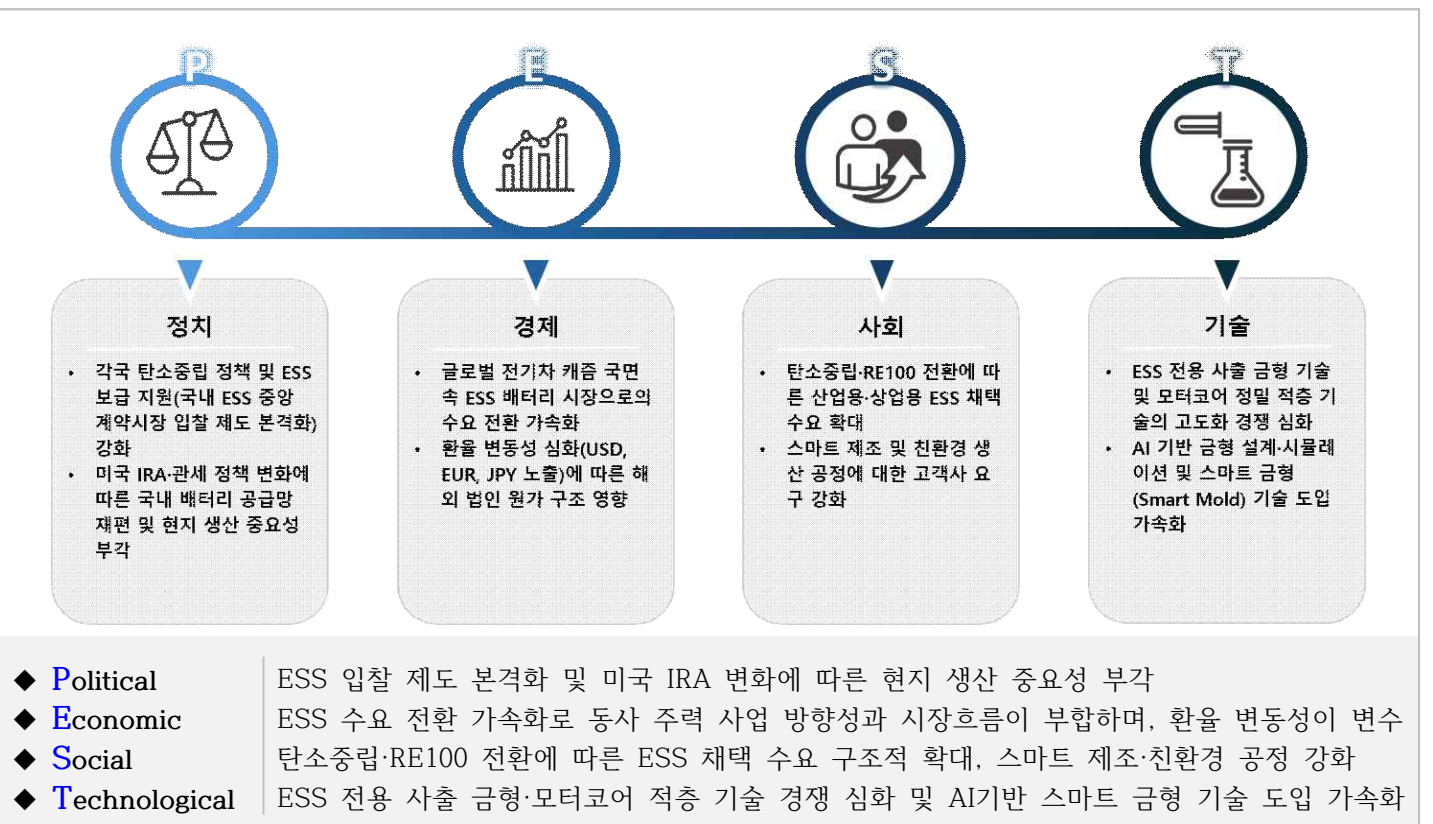
그림 7. Seat Rail 및 TRB cage 부품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전기차 전방수요 조정으로 외형이 축소된 가운데 금융손익으로 순이익을 방어한 실적 구조

동사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전기차 전방수요 조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영업손익은 손익분기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금융자산평가이익과 외화환산이익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였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38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하였다.

■ 금형부문 매출 908.9억 원, 전체 매출의 49.2% 차지

동사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구성은 금형부문(49.2%), 전기차 배터리팩·ESS부문(35.6%), 자동차·가전 부품양산부문(15.2%)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의 최근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2,310.0억 원에서 2024년 2,0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846.3억 원을 기록하며 9.4% 감소하였다. 금형부문은 908.9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49.2%를 차지하며 완성차 신모델 대응 수요를 바탕으로 핵심 매출원의 입지를 유지하였다.

■ 당기순이익 46.8억 원, 증가 기조 속 수익성 개선 기대

2025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1.9억 원 감소한 1,846.3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50.6억 원 감소하며 0.8억 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6.8억 원 증가한 46.8억 원을 나타내었다(매출액증가율 -9.4%, 영업이익률 0.0%, 순이익률 2.5%).

2026년 1분기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2억 원 감소한 383.2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41.5억 원 감소하며 28.2억 원의 영업손실을, 당기순이익은 42.5억 원 감소하며 36.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었다(매출액증가율 -9.5%, 영업이익률 -7.4%, 순이익률 -9.4%).

2025년 영업손익 축소는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매출원가율 상승이 동반된 결과이며, 당기순이익이 134.6% 증가한 것은 금융자산평가이익과 외화환산이익 등 영업외손익이 이를 상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원가율 상승이 조업도 하락에 따른 고정비 배부 부담에서 비롯된 만큼, 전기차 부문의 조업도가 회복될 경우 원가율 및 영업손익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나라엠앤디(051490)

■ 자기자본비율 40.2%, 유동비율 112.6%로 재무 안정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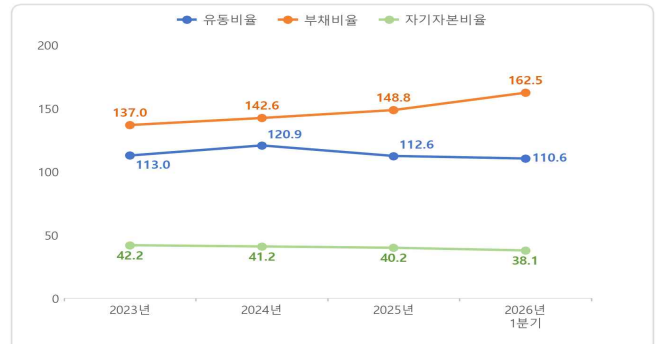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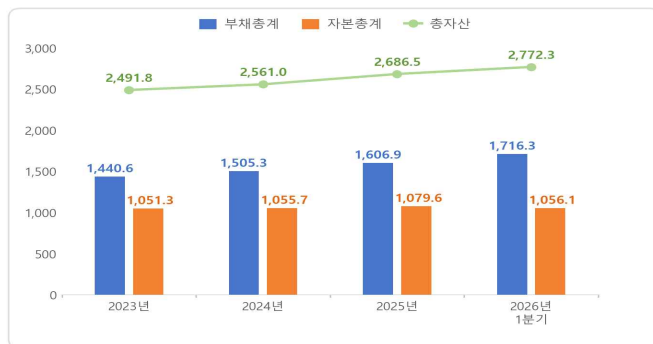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25.5억 원 증가한 2,686.5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606.9억 원 증가한 1,716.3억 원, 자본총계는 23.9억 원 증가한 1,079.6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8.3%p 하락한 112.6%, 부채비율 6.2%p 상승한 148.8%, 자기자본비율 1.0%p 하락한 40.2%).

2026년 1분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252.8억 원 증가한 2,772.3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257.0억 원 증가한 1,716.3억 원, 자본총계는 4.1억 원 감소한 1,056.1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1.7%p 하락한 110.6%, 부채비율 24.9%p 상승한 162.5%, 자기자본비율 4.0%p 하락한 38.1%).

총자산 증가는 해외 배터리팩 생산법인에 대한 설비투자 재원 조달과 관련된 차입금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2025년 투자활동현금흐름이 146.2억 원 순유출을 나타낸 점도 해외 생산능력 확충 투자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으나 40%를 웃도는 자기자본비율과 100%를 상회하는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 안정성은 우수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 증가가 성장 투자에 기인한 만큼, 투자 성과가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실현되는 시점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2,310.0	2,038.2	1,846.3	423.4	383.2
매출액증가율(%)	5.9	-11.8	-9.4	-14.4	-9.5
영업이익	107.1	49.8	-0.8	13.3	-28.2
영업이익률(%)	4.6	2.4	0.0	3.1	-7.4
순이익	89.2	20.0	46.8	6.4	-36.1
순이익률(%)	3.9	1.0	2.5	1.5	-9.4
부채총계	1,440.6	1,505.3	1,606.9	1,459.3	1,716.3
자본총계	1,051.3	1,055.7	1,079.6	1,060.2	1,056.1
총자산	2,491.8	2,561.0	2,686.5	2,519.5	2,772.3
유동비율(%)	113.0	120.9	112.6	122.3	110.6
부채비율(%)	137.0	142.6	148.8	137.6	162.5
자기자본비율(%)	42.2	41.2	40.2	42.1	38.1
영업현금흐름	125.3	161.9	68.7	16.7	-75.7
투자현금흐름	-151.2	-69.1	-146.2	-50.0	-18.1
재무현금흐름	40.3	-120.5	72.0	36.7	67.0
기말 현금	225.1	239.9	278.3	237.9	266.4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2026년 동사의 실적은 전기차 배터리팩·ESS부문의 회복이 금형부문의 매출 인식 이연을 상쇄하는 구간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 방향의 확정적 요인으로는 2026년 1분기 배터리팩·ESS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150.8억 원에서 223.5억 원으로 확대된 점이 확인된다. 멕시코 법인 매출은 4.7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늘었고, 폴란드·멕시코 법인의 유·무형자산은 각각 78.5억 원에서 121.1억 원으로, 249.0억 원에서 296.2억 원으로 확충되었다. 시장 전제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1.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객사의 현지 증설과 해외법인 양산 안정화가 수반될 경우 배터리 수요 확대가 사출부품 물량으로 전이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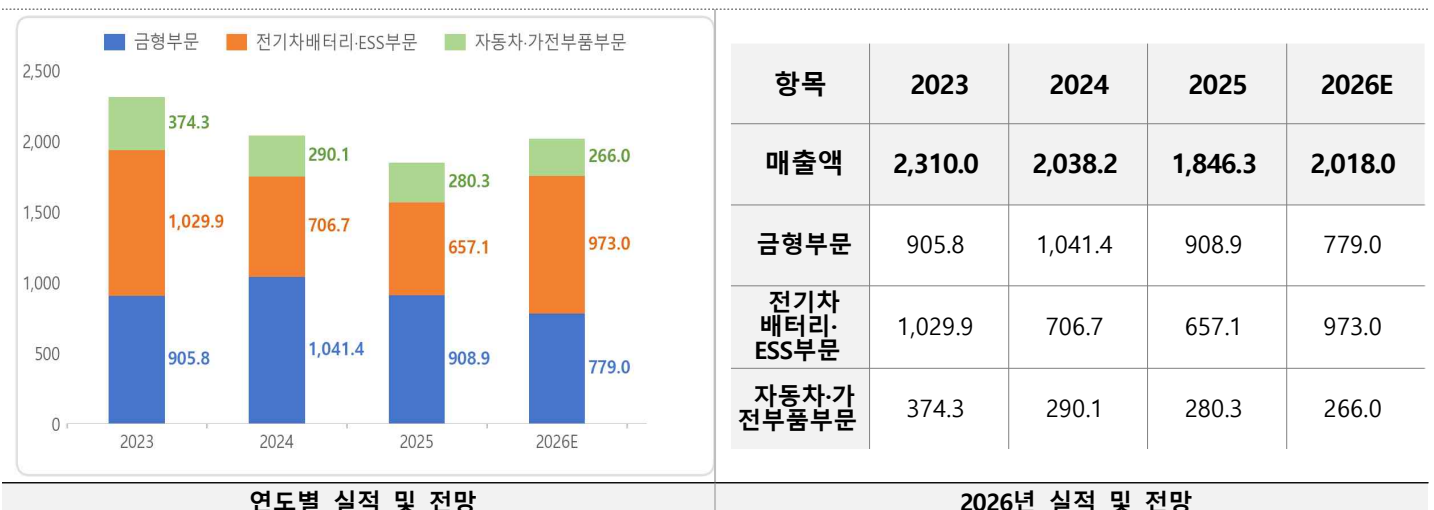
동사는 나라플라테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용 Compartment·Armrest, 냉장고용 Roller 등 기존 부품에 더해 2중사출 부품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품양산 구조를 전환하고 있으며, 자동차 모터코어·변속기 금형 국산화 기술을 통해 전기차 구동부품 등 전동화 관련 신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제품 믹스 고도화는 단순 양산 대비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전동화 전환에 따른 구동부품 수요 확대는 금형 기술을 신규 성장 영역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적으로는 매출원가율 개선 여부가 수익성 회복의 핵심 경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매출 감소로 고정비 레버리지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영업손익이 손익분기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므로, 전기차 부문 가동률(75.8%)이 회복되어 조업도가 개선될 경우 원가율 하락과 함께 영업손익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외법인 설비투자에 따른 투자 현금 유출과 차입 부담이 지속될 수 있어, 영업현금흐름 창출력의 회복이 재무 건전성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1.7억 원 증가한 2,018.0억 원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전기차 배터리팩·ESS부문이 315.9억 원 증가한 973.0억 원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금형부문은 129.9억 원 감소한 779.0억 원, 자동차·가전 부품양산부문은 14.3억 원 감소한 26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배터리팩·ESS부문 전망은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150.8억 원에서 223.5억 원으로 확대된 실적을 반영한 것으로, 전망수요 조정 국면을 지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0.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및 추정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ESS 수요 전환 수혜 본격화, 기존 사업 안정성 위에 성장 모멘텀 가시화

동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배터리 사업 확대 국면에 직접 연동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ESS 부품 매출 비중 58.3%로 이미 핵심 성장 사업으로 전환이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금형 및 부품양산 사업의 수주 기반이 견조한 가운데, ESS 금형·부품 수요의 구조적 확대가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 ESS 사출부품 사업 비중의 급격한 확대와 LG에너지솔루션 수주 재개

동사 연결 그룹의 2026년 1분기 매출구조에서 전기차 Battery Pack/ESS 사출부품양산 부문이 58.3%를 차지하며 최대 사업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ESS 부문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결과로 파악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6년 들어 미국 DTE에너지와 6GWh,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재개하며 2025년 말 기준 누적 140GWh의 ESS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공급 확대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ESS 사출금형 및 부품 협력사로서, 고객사의 북미 생산 거점 확대 전략이 동사의 폴란드·멕시코 법인 등 해외 생산 거점 가동률 상승으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수주 잔고가 2026년 4월 기준 150GWh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동사의 부품 공급 물량 확대 가시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미국 시장 내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배터리 공급망 전반의 수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ESS 부품 수주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 금형·부품양산 사업의 견조한 수주 기반 유지

동사의 금형부문은 2026년 1분기 25.3%의 매출 비중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주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레오, 현대모비스, 경창산업 등 자동차 Tier-1 업체 및 LG전자 등 가전 대기업과의 오랜 공급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모델 교체 주기에 맞춰 지속적인 금형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동차·가전 부품양산 부문 역시 완제품 단종 시까지 안정적 납품이 보장되는 산업 특성상 견조한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라플라테크(주)의 이중사출 등 고부가가치 공정 전환이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존 사업의 안정적 수익 기반은 ESS 부문 성장 투자를 지속하는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차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는 금형·부품 전 사업부문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 ESS 금형 전환 및 글로벌 생산 인프라 완성을 통한 중장기 성장 전망

LG에너지솔루션의 ESS 라인 전환 작업이 안정화 수순을 밟으면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ESS 금형·부품 공급 물량 확대에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도 2026년부터 장주기 ESS 중심의 신규 입찰시장 제도가 본격화될 예정으로,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 시장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사는 국내·중국·폴란드·멕시코의 생산 거점이 모두 가동 중 또는 안정화 단계에 있어, 글로벌 ESS 수요 확대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ESS 구조적 확대 국면에서 동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공급망 내 고착화된 포지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방 고객사의 수주 잔고 확대가 동사의 중장기 수주 가시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라엠앤디(05149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

“나라엠앤디는 최근 핵심 협력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LFP 배터리 공급 계약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팩 부품 공급 확대를 통해 실적 반등과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 Gemini

증권사 투자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051490 코스닥

단위 : 원, 주, % | 기준 일자 : 2026.0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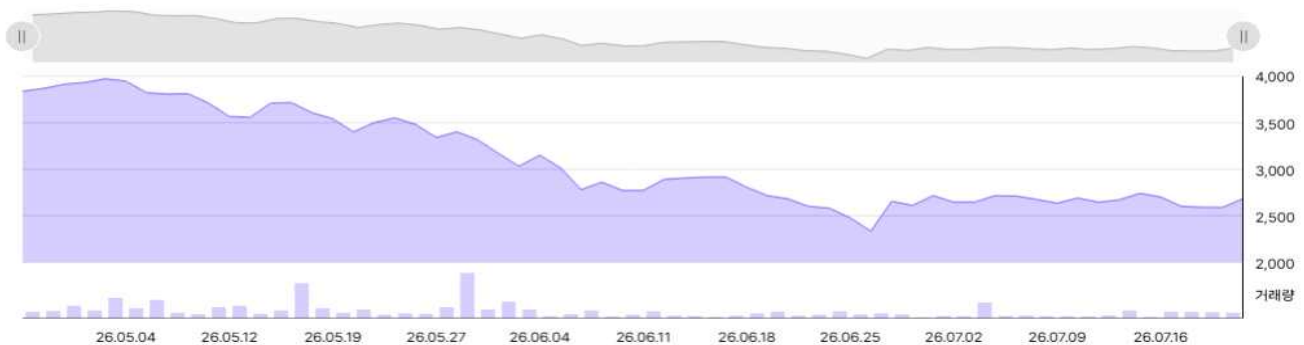
2,685 ▲95 +3.67%

전일
시가 2,590
2,605

고가 2,695
저가 2,605

거래량 12,230 주
거래대금 32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6.07.23.)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나라엠앤디	X	X	X